

양천구, AI·IoT로 어르신 건강 스마트하게 살핀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돌봄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손목형 활동량계(스마트밴드), 체성분 체중계, 블루투스 헬프기·헬당기, AI 스피커 등 총 5종의 스마트 기기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제공된다.

대상자는 스마트폰에 '오늘건강' 앱(APP)을 설치해 헬프·헬당 측정, 걸음수 확인, 식생활·운동 실천 등 일상 속 건강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측정 결과는 자동으로 앱에 연동돼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방문간호사와 운동사·영양사 등 전문인력은 축적된 데이터를 주 1회 단위로 모니터링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건강 수준과 생활습관에 맞춘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이상 수치가 감지되거나 장기간 미이용 시에는 유선 확인을 통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비대면 관리에 더해 동주민센터, 경

로당 등을 거점으로 한 건강소모임도 함께 운영된다. 방문간호사 28명과 AI·IoT 전담인력 4명이 참여해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운동·영양 교육은 물론 우울·스트레스 관리, 구강·치매예방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예방 중심 건강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ES에서 빛난 금천구 기업들 … 7개사 성공적인 진출

금천구(구청장 유흥훈)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IT박람회인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금천구 G밸리 소재 7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CES 혁신상을 수상한 (주)오타 톤메디컬, (주)세이프웨이, 지오원드(주)를 포함해 (주)가시안(DEFI), (주)일아스AI, (주)수다밸로퍼스, (주)엠에이치에스 등 총 7개사가 CES에 참가했다.

이와 관련 구는 CES 주최사 전미소

비자기술협회(CTA)의 승인을 받아야 임접할 수 있는 스타트업 전시관에 금천G밸리관을 조성해 관내 중소기업의 CES 참가를 지원했다.

특히 CES 혁신상 수상 제품만 전시 할 수 있는 별도의 전시공간인 '이노 베이션 어워드 쇼케이스(Innovation Awards Showcase)'에는 (주)오타 톤메디컬, (주)세이프웨이, 지오원드(주)를 포함해 (주)가시안(DEFI), (주)일아스AI, (주)수다밸로퍼스, (주)엠에이치에스 등 총 7개사가 CES에 참가했다.

기업 관계자는 "구의 지원을 통해 스

타트업이 혼자 힘으로는 서기 어려운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이 기회를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세계 시장에 정착하고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CES 참가를 통해 금천구 기업이 세계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환원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장성 기자

구로구, 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마련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3일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026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파업 발생 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교통행정과 중심으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실제 파업이 돌입될 경우 '비상수송대책본부'로 격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비상수송 대책의 핵심은 무료 서틀버스 운행이다. 구는 지역 내 주요 지하철 역과 연계한 7개 노선에 45인승 전세버스 총 21대를 편성해 오전(11대)과 오후

(10대)로 나눠 운행할 방침이다.

운행 노선은 △구로동1(신도림역~남구로역) △구로동2(디지털단지오거리~구로역) △고척동1(고척사거리~오류동역) △항동1(항동지구~천왕역) △구로동3(디지털단지오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수공동1(공동생태공원~온수역) △항동2(항동지구~온수역~오류동역) 등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빠른 시일 내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이울러 구는 아파트 단지 내 방송, 누리집,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교통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파업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전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틀버스에는 노선 안내문을 부착하고 직원이 탑승해 현장 안내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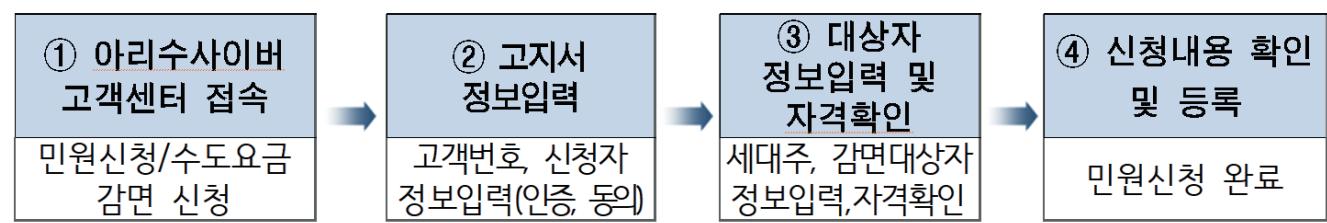
구로구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빠른 시일 내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온라인 신청 절차〉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장성 기자

시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실천… 2026 녹색서울실천사업 참여단체

기후대기·자원순환·생태·환경보건·환경교육 등 5개 분야 13개 지정사업 및 일반분야 모집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속 환경 문제 해결,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026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 사업에 대해서 총 3억원(사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후대기 ▲ 자원순환 ▲ 생태 ▲ 환경보건 ▲ 환경교육 5개 분야 지정 사업

과 자유 주제인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 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역 기반 불안 심리지원, 초소형 전자제품·2차 전지 수거 시민참여, 멀균팩 분리 배출 시범사업 등 신규 지정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는 ▲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 사업수행 단체역량 ▲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최근 3년 연속 선정되었거나, 5년 동안 4회 이상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배제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목) 오후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2026 녹색서울실천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제로서울'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된다.

이장성 기자

AI 시대에도 통하는 기술, 서울에서 겨룬다…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시, "기술의 가치는 현장에서 증명…AI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숙련기술인 발굴할 것"

2023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배관 직종 금메달리스트인 윤승현 선수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변화 속에서도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기술인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배관 직종에 관심을 갖고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한 윤 선수는 서울·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뒤, 국가대표 평가전을 거쳐 2026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윤 선수는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며 쌓은 실력과 자신감 덕분에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었고, 숙련된 기술은 AI 발전과 같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AI가 업무의 자동화를 앞당길 수록 사람의 숙련기술이 지닌 경쟁력은 더욱 선명해지는 가운데,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술의 가치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무대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4월 6일(월)부터 4월 10일(금)까지 열리는 '2026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를 1월 12일(월)부터 23일(금) 18시까지 마이스터넷 누리집(meister.hrdkore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기능경기대회는 '국내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구성된다.

1966년 개최 이래 매년 실시 중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시도별로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와 17개 시도의 대표 선수들이 기술 수준을 겨루는 전국기능경기대회로 나뉘고,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의 경연장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1950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세계 각 도시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기능경기대회는 'AI 시대에도 경쟁력이 되는 기술'을 중점으로, 전통신업 분야와 미래산업 분야가 급형

을 이루도록 경기 직종을 편성했다.

금형, 주조 등 서울시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뿌리기술 직종과 더불어 산업용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 등 미래산업 핵심 직종을 함께 구성해 총 7개 분야 51개 직종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보보안 직종은 산업 수요와 현장 반응을 반영해 올해 정식직종으로 전환했으며, 모바일앱개발 직종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정식직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직업훈련기관인 기술교육원(중부·동부·북부캠퍼스)을 통해 융합·조경·자동차정비 등 분야에서 매년 5천여 명의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7개 학과에서 훈련생 2,004명을 모집 중이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